

Economy Brief

싱거웠던 10월 FOMC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fmfnsec.com

Check Point

10월 FOMC 회의 결과는 금융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향후 금리인상 사이클, 즉 추가 금리인상 폭 등에 대한 시그널도 없었던 회의 내용이며 결과임

향후 유가 추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장대한 분노' 이후 유가 안정 여부가 12월 추가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보면 막바지 국면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AI 사이클, 특히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흐름이 국채금리 등 금융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할 전망이다

다소 싱거웠던 10월 FOMC 회의 결과

10월 FOMC 회의 결과는 금융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향후 금리인상 사이클, 즉 추가 금리인상 폭 등에 대한 시그널도 없었던 회의 내용이며 결과였다. 10월 FOMC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 미국 경제는 더욱 강해졌고 2)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할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평가와 관련하여 9월 FOMC 회의 성명서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시 의장을 포함해 미 연준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등 자본지출 호조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강력한(Strong)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월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이 견고한(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해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9월 성명서와 비교해서는 다소 경계감을 높였지만 워시 의장 등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다만, 12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10월 성명서에서는 "정보의 추가 축적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2% 목표로 적시에(timely) 복귀하도록 보장하는데 적절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9월 성명서에서 '시의적절하기(timelier)'라는 표현을 '적시에(timely)'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또한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리사 쿡 이사가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면서 금리동결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12월 추가 금리인상에 힘을 더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리사 쿡 이사는 2022년 취임 후 처음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금융시장이 가장 관심은 높았던 것은 12월 추가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의 지속 여부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은 던져주지 않았다. 다만, 케빈 워시 의장이 금융여건이 다소 긴축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주목된다. 케빈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9월 정책 조치 이후, 금융 및 신용 여건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예상했던 대로 일부 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그것들(금융 및 신용 여건)이 긴축됐다"고 밝혔다. 워시 의장은 다만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더 긴축적이지만, 나는 이를 '긴축적'(tight)이라고 부를 의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에 비해 긴축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FOMC회의 성명서와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듯이 인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좀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결국 유가 흐름이 12월 이후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

일부의 의견이지만 골드만삭스의 경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1983년 이후 가장 소규모로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와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에 더욱 주목하는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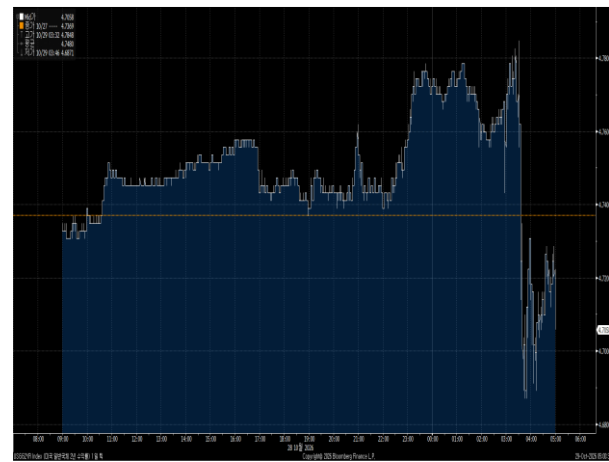
FOMC회의보다 금융시장이 더욱 주목하는 것은 유가와 AI 사이클, 즉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과 관련된 뉴스다.

유가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이란 불확실성 리스크를 더욱 자극하면서 유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출구조사와 달리 실제 개표에서는 네타냐후 진영이 선두로 올라섰다. 親네타냐후 정당들이 53석을 반면에 反네타냐후 정당은 48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정구성 등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네타냐후가 계속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장대한 분노'가 단행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며 이는 유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당사의 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장대한 분노'가 어느정도 기간으로 진행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만큼이나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다. 29일 미국 주식시장이 FOMC 회의 내용보다 오라클의 자본지출 축소 계획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 이를 반영한다. 다소는 매파적 10월 FOMC회의 결과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것은 오라클의 자본지출 축소 소식이 큰 역할을 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보면 막바지 국면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AI 사이클, 특히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흐름이 국채금리 등 금융시장에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림1. 미국 2년 국채금리 장중 추이 :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소폭 하락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오라클 주가가 자본지출 축소 계획 발표로 28일 큰 폭 반등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